

광주시·전남도 인적·물적자원 총동원 확산 차단 집중

접촉자 격리·확진자 거주지 긴급 방역
광주 시내버스 소독·손 소독제 비치
나주시 확진자 발생 마을 경로당 폐쇄

광주시와 전남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사·도민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 집중하고 있다. 광주시는 첫 확진자가 발생한 광주21세기 병원을 신속히 분리 조치해 정부로부터 '좋은 방역 사례'로 평가받기도 했다.

6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4-5일 광주에서 2명의 확진자가 나온 데 이어 이날 전남에서도 첫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접촉자에 대한 신속한 격리, 확진자 거주지 주변 방역 등에 나서는 등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시는 특히 확진자 자녀가 다닌 유치원과 입원했던 병원, 근무했던 우편집중국 등을 즉각 폐쇄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휴관조치도 빠르게 진행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6일 오전 감염병 차단 관련 간부회의를 갖고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모든 부서는 시민 중심의 감염병 예방·방역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특히 시민들이 '가짜뉴스' 등에 혼란스럽지 않도록 관련 정보도 최대한 신속하게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오전 열린 정부 주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광주21세기병원 내 감염자와 접촉자를 신속히 분리 조치한 광주시의 방역 행정이 '좋은 방역 사례'로 평가받았으며, 정부는 앞으로 집단 시설 내 감염자 발생 시 광주시의 행정을 주목하기로 했다.

감염병 확산을 막는데 모든 부서가 힘을 모으고 있는 광주시는 앞으로 정중제 행정부시장 주재로 매일 오전 8시 30분 30개 기관 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일일 추진사항 점검회의를 갖는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총력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민참여 행사를 원칙적으로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사 지침을 각 부서와 자치구, 산하기관에 시달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주시내버스 조합도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내버스 차량 내부 집중 소독과 함께 승객용 손 소독제 등을 설치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차단 방역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첫 확진자가 발생한 전남남도도 김영록 전남지사를 중심으로 감염병 예방 대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브리핑룸에서 가진 긴급 담화문을 발표하고 신종 코로나 첫 확진자 발생과 관련한 대책을 설명했다.

김 지사는 "나주에서 발생한 22번째 확진자는 16번째 확진환자의 오빠로 최종 확인돼 조선대병원에서 격리치료 중"이라며 "이미 확인된 가족접촉자의 경우 자가격리를 실시했고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이후 확인된 접촉자도 신속히 격리조치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이동 경로와 접촉자 확인 등 역학조사에 나서는 등 이미 16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나주시에서는 해당 마을 경로당을 폐쇄하고 마을과 대중교통시설에 대해서도 소독을 나섰다. 또 터미널과 마트, 대중교통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일선 의료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용품 52여여종을 확보해 긴급수요에도 대비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전남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 비상 대책회의를 갖고, 보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즉시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김 지사는 "지금도 그 어느때 보다도 도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한 시기"라며 "앞으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해 지역사회 전파를 막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현석 기자 chadol@/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6일 오후 광주 광산구 하남사회복지관에서 방역기관에서 나온 직원들이 복지관 내부를 방역하고 있다. 하남사회복지관은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18일까지 휴관중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국내환자 절반 이상 '중국 방문력' 없어... 제3국·N차감염 불안 고조

총 23명 중 중국방문 10명

일본 1명·태국 2명·싱가포르 2명

국내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23명 중 절반 이상이 '중국 방문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국내 환자 23명 가운데 우한시 등 중국을 방문한 사람은 10명뿐이다. 일본, 태국, 싱가포르 입국자는 5명이다. 가족·접촉자로 연인 관계는 확진자를 포함해 13명이며, 이 가운데 가족관계는 10명이다.

이들 국내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중국발 입국자 중심의 검역 체계에 더해 신종코로나 발생 제3국발 입국자 관리와 기존 확진환자 및 접촉자를 통한 N차 감염 방지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환자 절반 이상 '중국 방문력 없어'... 제3국 방문자 5명=국내 환자는 23명 가운데 해외 방문자는 15명이다. 이 가운데 중국 방문자는 10명뿐이다.

중국 이외 '제3국'을 방문한 환자는 5명이고, 방문 지별로 보면 싱가포르 2명, 태국 2명, 일본 1명이다. 싱가포르 방문 환자는 17번 환자(38세 남성, 한국인)와 19번 환자(36세 남성, 한국인)다. 두 사람은 싱가포르에서 같은 콘퍼런스에 참석했다.

태국 방문 환자는 16번 환자(42세 여자, 한국인)와 18번 환자(21세 여성, 한국인)다. 두 사람은 모녀 관계다. 일본 방문 환자는 12번 환자(49세 남성, 중국인)다. 이들은 중국 방문력이 없어 보건당국의 모니터링 대상이 아니었다. 중국 방문력을 우선해서 확인하는 현재 기준으로는 신종코로나 검사 대상도 되지 못했다.

◇3번-6번-10-11-21번 전파... 부부 2쌍=국내 환자가 증가하면서 '2~3차 감염' 사례도 늘고 있다.

지난달 24일 확진 판정을 받은 3번 환자(54세 남성, 한국인)는 이날까지 2주간 환자 4명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했다. 3번 환자 관련자는 6-10-11-21번 환자다. 6번 환자(55세 남성, 한국인)는 3번 환자의 지인이다. 3번 환자가 우한에서 귀국한 뒤 확진되기 전 강남 음식점(한일관)에서 식사를 함께했다.

10번 환자(52세 여자, 한국인)와 11번 환자

(25세 남자, 한국인)는 3번 환자의 가족이다. 10번 환자는 아내, 11번 환자는 아들이다. 확진자가 가족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한 '2차 감염' 사례다.

21번 환자(59세 여성, 한국인)는 3번 환자로 인한 '3차 감염' 환자다. 3번 환자의 지인인 6번 환자의 접촉자다. 이 환자에 대해서는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으로 6번 환자와 어떤 접촉을 했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5번 환자(33세 남성, 한국인)는 9번 환자(28세 여자, 한국인)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했다. 9번 환자가 확진된 이후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됐고, 이때 받은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인됐다.

20번 환자(41세 여성, 한국인)는 우한을 방문하고 귀국한 15번 환자(43세 남성, 한국인)의 가족이다. 감염 경로는 아직 파악 중이다.

태국을 여행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16번 환자(42세 여자, 한국인)는 확진 이후 가족 2명도 확진자로 확인됐다. 확진 판정을 받은 가족은 큰딸과 친오빠다. 친오빠는 22번 환자(46세 남성, 한국인)로 16번 환자와 지난달 25일 나주시에서 있는 어머니 집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는 18번 환자와 16번 환자의 남편과 다른 자녀들도 있었다. /연합뉴스

"16번 확진자, 극장·마트 방문 아울렛 직원 글은 모두 가짜뉴스"

광주시, CCTV·차량 GPS 동선 확인

광주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인 16번 환자의 이동 경로와 근무 이력과 관련해 시중에 떠돌고 있는 글은 모두 거짓인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는 6일 브리핑 자료를 통해 "'16번 환자가 사우나, 터미널, XX마트, XX시네마, 백화점, XX 아울렛을 방문했고 XX마트 직원이다'는 글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시는 "16번 환자가 무안공항을 통해 입국한 지난달 19일부터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 4일까지 해당 장소에 간 적이 없다. 모두 가짜뉴스이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16번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맘카페와 SNS 등에는 '16번 환자가 확진 이전에 광산구 롯데시네마, 수완지구 롯데마트, 광천터미널, 롯데-신세계백화점, 점단사우나를 다녔고 롯데아울렛 수완점

에서 근무했다'는 등의 미확인 글이 확산했다.

질병관리본부와 광주시는 해당 기간동안 16번 환자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CC-TV, 차량 GPS기록 등을 확인하고, 본인에게도 직접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냈다. 광주경찰은 SNS 등을 통해 떠돌고 있던 16번 환자의 개인 정보 등이 들어있는 공문과 가짜뉴스의 유포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허위사실 유포 시 최초 게시자는 물론 허위내용임을 알면서도 퍼뜨린 유포자도 함께 처벌을 받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16번 환자와 관련해 감염증상이 발현하기 전인 지난달 24일까지의 이동경로는 사실상 무의미 하지만, 가짜뉴스의 유포가 심각해 진 위 여부를 밝히게 된 것"이라며 "시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강경화 "입국제한, WTO 권고·국제사회 동향 등 감안해 결정"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각에서 요구하는 중국인 입국 제한 확대에 대해 "국민 안전이 최우선 과제이지만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와 (입국제한) 조치지 효력, 국제사회 동향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심각한데 정부가 입국 금지 확대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매일 종합적으로 상황을 점검·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상하이밍 신임주한중국대사의 신종코로나 관련 브리핑이 전례 없다는 지적에는 "신인장 사본을 외교부에 접수해 외교 관계에 대한 빈 협약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언론이 중국 대응을 궁금해하는 상황에서 기자간담회를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신세계안과

10인의 안과전문의

분야별 진료

노안 백내장

스마일 라식·라섹

녹내장

당뇨 망막병증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